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다문화·학교자치·공무직 채용·고교학점제·사립유치원회계' 서비스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학생·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요 행정지원과 이행 기준,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문화교육, 학교자치 활성화, 공무직 채용, 고교학점제, 사립유치원회계 지원' 서비스 이행기준이 신설됐다. 시민들은 신설된 이행기준을 통해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 분야와 각 행정서비스별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서비스 지향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본청 협의실에서 오승현 부교육감, 이승우 교육국장, 홍양준 행정국장, 조미경 총무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 회의록을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올해 3월 1일자 고교학점제팀 신설 및 학교자치 기획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심의과정에 학부모,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개정된 헌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시민들이 교육청 행

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시교육청 조미경 총무과장은 "등교 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설된 분야뿐만 아니라 각 행정서비스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에 굴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



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포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2000년도부터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제5회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제3차 정기회

일시: 2020. 6. 18.(목) 14:00 장소: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남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 개최 2년차 활동 본격화

코로나19 순차적 등교 개학, 생활방역 등 주요 현안 관련 제안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위원장 김성보)가 7개월 만에 첫 정기회를 갖고 2년 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18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6층에서 위원 30명과 장석웅 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첫 번째 정기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뒤늦게 열린 올 첫 교육참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추진 정책과 추가경정예산 등 전라남도 교육청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생생하고 다

양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위원들은 온라인수업과 순차적 등교, 돌봄교실, 학교방역, 농산물꾸러미 제공,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코로나19 상황 속 전남교육청의 주요 정책추진 현황과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민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제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과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편성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와 함께, 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1년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과 지역사회의 다양

한 목소리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교육행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2020년 운영 방향을 정하고 소위원회도 이런 흐름에 맞게 재편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라는 초유에 시대 속에서도 전남교육이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심에 교육참여위원회가 있다"면서 "교육참여위원회가 전남교육의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변수를 줄이고 내용을 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구성된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 정책 수립 방향과 평가, 그 밖의 교육현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김정환 기자**

순천대 창업지원동아리 7개팀 道 벤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전라남도 주관 『2020년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 사업』에 재학생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동아리 7개 팀이 지난 5월 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전라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을 도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대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총 9개 대학 30개 동아리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순천대학교 재학생 창업지원 동아리는 △디자인 키링을 제작하여 건강 펫 간식을 제조·제작하는 '쿠킹 마마' △실버세대 발효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제작하는 '발효골드' △투웨이 조거 팬츠를 제작하는 'No Entry' △수제맥주 및 홈브루잉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드림루트2020' △밀키트를 이용해 대체육 식품 제조·제작하는 '짹짹인생' △디자인 에폭시 아트로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WHATEVER' 등 총 7개 팀으로 향후 총 3천 여 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창업 활동 공간,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화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의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대 최용석 창업지원단장은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이번 사업에 선정된 전남지역 9개 대학 가운데 우리 대학교가 가장 많은 7개 팀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대, 24일 온라인 토크콘서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융합기술 전망' 주제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국내 최고의 AI전문가 등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AI 융합기술의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KWSE·회장 임효숙)와 호남대학교 여교수회(회장 백란)가 공동주최하는 AI 융합 토크콘서트는 24일 오후 2시 호남대학교 IT스퀘어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빅데이터와 미래예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희

윤 원장), '지능정보시대의 지역 R&D 정책방향' (서울대학교 이신두 교수), '왜 인공지능인가?' (민형배 국회의원, 민주당 광산구을)를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대학교육과 AI융합교육' (전남대학교 한은미 부총장), '사회복지 영역의 사각지대' (광주대학교 장하경 교수), '광주광역시 AI집적단지 추진현황' (광주시 순경중 AI산업국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AI융합기술을 더욱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